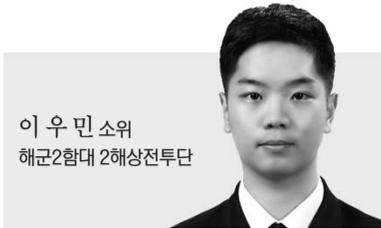


서해 최전방에서 'Seaman'으로 거듭나다

최근 해군 장교로서 가슴 벅찬 첫 항해를 경험했다. 나의 첫 항해는 세상에 처음 태어난 아이의 삶을 떠올리게 했다. 갓 태어난 아기는 탯줄을 끊고 우렁찬 첫 울음을 터뜨린다. 내 첫 항해 역시 육지와 연결된 훗줄을 걷어내고 우렁찬 출항 기적을 울리며 시작됐다.

어린 시절부터 꿈꿨던 상상 속의 항해는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고 햇살이 빛나며, 하늘에 구름이 떠다니는 낭만적인 모습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서해의 짙은 해무와 항해하는 고속정의 흔들림 속에서 끊임없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임무를 되새기며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 수많은 선배장병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낸 서해는 그 뜻을 이어받은 우리에게 결코 낭만적인 장소가 될 수 없었다. 오히려 팽팽한 긴장감과 숙연함이 감도는 최전방이었다.

첫 항해에 오른 나는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다. 욕심을 내 많은 역할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신중하게 배우고 숙달하는 데 집중했다. 나는 기회가 생길 때마다 고속정의 구조와 각 당직 개소별 임무를 확인하고, 운용 절차·원리를 머



이우민 소위
해군2함대 2해상전투단

릿속으로 그리며 숙지했다. 편대장님과 정장님에게 함정 운용과 조항 특성을 배운 것도 큰 도움이 됐다. 또 관련 예규와 참고 서적을 통해 공부했던 지식이 실제 임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면서 배움의 희열을 느낄 수 있었다.

항해하며 가장 크게 느낀 것은 항해 중에는 승조원 모두가 한 몸이 되어 한다는 것이었다. 바다에서는 전우들과 한 몸이 돼 저마다의 역할을 잘 수행해야만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편대장·정장·전탐·조타·견시·기관 등 각 개소에서 저마다 머리·팔·다리·눈·심장이 돼 한 몸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나는 아직 많은 부분을 배우는 단계에 있지만, 주변 동료들의 도움으로 부족함을 채워가며 무사

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임무 완수를 위해 자신감 있게 나아갔고, 무사히 항해를 마칠 수 있었다.

나는 이전까지 바다를 마주하는 팽곶에서 여정은 끝이 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바다는 길의 끝이 아닌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아마도 팽곶에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항해의 매력에 이끌려 나 또한 해군을 지원해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더욱이 우리 해군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명으로서 항해의 길을 나서지 않는가? 송고한 뜻을 갖고 바다를 향해 나아가니, 해군으로서 임무에 임하는 의지와 자부심이 샘솟는다.

앞으로 내가 배우고 발전하며 나아가야 할 길이 손에 잡히지 않는 저 먼 수평선처럼 멀게 느껴지지만 힘 닿는 곳까지 최선을 다해 나아가려 한다. 첫 항해에 배울 것이 많았던 내가 언젠가는 동료들에게 힘이 되고, 대한민국을 위해 바다의 방패가 되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한다. 나는 오늘도 우렁찬 출항의 기적을 울리며 힘차게 항해 중이다.

집밥, 그 이상의 의미



김상원 중사
육군1군지사 6군수지원단

‘집밥 백선생’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예전에 즐겨 봤다. 프로그램이 ‘집밥’이란 키워드를 내건 것은 집밥이 사람들에게 주는 느낌 때문일 것이다. 집밥은 누구에게나 그림고, 어릴 적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나는 육군1군수지원사령부 예하 6군수지원단 급양관리관으로서 어떻게 하면 부대원들에게 집밥과 같은 맛있는 급식을 제공할 수 있을지를 항상 고민한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오랜 기간 집에서 떨어져 지내는 용사들에게 어머니의 손맛이 느껴지는 따뜻한 밥을 제공하는 일이 급양관리관의 사명이기 때문이다. 임무 수행을 할수록 한 가지 분명해지는 것이 있다. 바로 부대에서 제공하는 급식은 어쩌면 집밥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다.

부대에서의 한 끼 식사에는 음식을 조리하는 사람의 정성만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 한 끼에는 수많은 사람의 애정과 노력이 버무려진다. 이를테면 우리 부대에서는 매월 여러 부대와 함께 ‘지구급식협의회’를 개최해 양질의 급식을 편성하고자 지휘관을 비롯한 많은 실무자가 머리를 맞대며 고민한다. 이 회의에서는 전월 메뉴에 대한 용사들의 선호도를 분석하고, 이를 피드백 삼아 이번 달에 조금이라도 더 나은 메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로 ‘샤인머스켓’이나 ‘새우감바스’ 같은 메뉴가 식단에 오르기도 한다.

월 메뉴를 정하고 나면 이번엔 주마다 단장님 주관으로 ‘추가 반찬’을 결정하는 병영식당운영회의를 진행한다. 이 토의에는 영양사, 민간조리원, 조리병, 일반 용사들이 참여한다. 예컨대 분대장들이 사전에 용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기본 메뉴인 샐러드에 ‘옥수수콘’과 ‘베이컨’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한다. 조리병과 민간조리원 등은 제한사항 유무를 검토해 추가 반찬을 결정한다.

이렇게 반찬이 결정되면 민간조리원들이 정성껏 조리해 한 끼 식사가 완성된다. 민간조리원은 집에서는 저마다 누군가의 어머니이지만, 부대에서는 용사들의 어머니가 돼 정성스레 음식을 만든다. 이렇게 용사들은 어머니의 손맛이 담긴 ‘집밥’ 같은 급식을 맛보게 된다.

급식의 질은 지휘관부터 용사까지 수많은 이들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결정된다. 이렇게 완성된 밥을 먹으면서 용사들이 어머니의 손맛을 떠올리고, 그들의 행복에 조금이라도 기여한다면 이는 결국 부대 전체의 전투준비태세로 이어질 것이다.

얼마 전 한 용사가 내게 “부대에 처음 왔을 때보다 훨씬 밥이 맛있어졌다”고 말한 적이 있다. 용사들의 이런 반응을 들을 때면 급양관리관으로서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안도감을 느낀다. 동시에 앞으로도 많은 정성을 쏟아 더 맛있는 부대 급식을 만들어야겠다는 막중한 사명감을 느낀다.

슬기로운 병영생활

입대를 앞둔 사람들은 대부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군 복무 기간을 잘 보낼 수 있을까?’ ‘과연 내가 군대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어려운 선임을 만나면 어떻게 하지?’ 등등.

나 또한 마찬가지였다. 성격상 여러 사람과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기보다는 마음 맞는 소수와 지내는 걸 선호하고, 혼자 사색에 잠기는 걸 즐기는 타입이 었기 때문이다.

결국 여러 걱정과 고민을 안고 입대해 자대 배치를 받았고, 공군1방공유도탄여단 군사경찰대의 일원이 됐다. 대구라는 낯선 곳에서 처음 만나는 부대원들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내겐 더 힘들게 느껴졌다.

그런 내가 의기소침하고, 힘들어 할 때마다 바로 위 선임이 다독여줘 잘 견딜 수 있었다. 그는 “신병이고 처음 해보는 일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어. 준비해서 다음에는 더 잘하면 돼”라고 위로의 말을 자주 해줬다. 그 선임은 나뿐만



안교준 병장
공군1방공유도탄여단
군사경찰대

아니라 다른 후임들이 힘들어할 때도 늘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주곤 했다. 그가 보여준 배려와 위로 덕분에 나도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행동과 마음가짐을 배울 수 있었고, 막막하게만 느껴졌던 군 생활을 자신 있게 시작할 수 있었다.

이렇게 군 생활에 적응하고 나니 이제 남은 시간을 더욱 알차게 보내자는 생각이 들었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기간을 어떻게 더 생산적으로 보낼 수 있을지 고민했고,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원하는 공부를 하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생각을 바로 실천으로 옮겼다. 근무를 마치고 나면 꼭 필요한 휴식 시간 외

에는 가능한 한 책을 보고 펜을 들려고 노력했다. 그렇게 1년 조금 넘게 세무사 자격증 시험공부를 했고, 마침내 세무사 자격 1차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

누군가는 ‘군대는 20대 청춘의 무덤’이라는 말을 한다. 하지만 전역을 앞둔 이 시점에 돌아보니 나에게 군대는 20대 청춘이 성장할 수 있는 ‘요람’이었다.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다하면서 이른 세무사 자격 시험 1차 합격의 성취감은 ‘앞으로 무슨 일든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 넣어줬다.

이렇듯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21개월의 군 생활에서 나는 선임의 위로·응원 덕분에 상대방을 배려하고 위하는 마음가짐을 배울 수 있었고, 더 나은 인생을 위한 도약을 할 수 있었다. 그가 했던 사소한 말 한마디가 나비효과가 돼 내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된 것이다.

나 역시 그 선임처럼 이 글을 통해 전우들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전우들이 슬기로운 병영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응원한다.



알림

응모 분야: 산문, 시, 독후감, 편지, 카툰, 사진, 그림, 캘리그래피
 분량·크기: 자유 (산문·시·독후감·편지는 공백 포함 1700자 이내)
 응모 대상: 국군장병, 군인가족, 일반독자
 응모 방법: 국방홍보원 홈페이지 공지 게시판 양식 이용해 이메일(장병은 부대 정훈계통 문의)로 제출
 기타: ‘병영의 창’ 게재자에게는 매월 말 개인 휴대전화번호로 치킨 세트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문자가 스팸처리 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이메일 주소: 인터넷 letter3753@dema.mil.kr, 인트라넷 letter@mnd.mil
 문의: 군) 947-3732(육군), 3736(해군·해병대), 3742(공군), 일반전화) 02-2079-3718